

지역 농기계산업 특화 글로벌경쟁력 확보 나서

도,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 고도화지원 생태계 구축 2030년 세계 시장점유율 3% 달성 등 기반 마련 기업 최적설계 지원·신제품 개발 후 구축장비 활용

전북도는 17일 지역 내 농기계산업을 특화시키고 국내 농기계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 고도화지원 생태계 구축사업'(이하, '수출농기계고도화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18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으로 2017년 4월 산업부에 추진 타당성이 인정되어 올해부터 5년간(2018~2022)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국비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출현중 유일한 농기계 관련 연구센터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농기계 신뢰성평가센터(이하 '생기원')를 통해 총 195억원을 투입,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농기계 업체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대비 기술·품질 열세, 후발국 대비

가격 열세의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중국 등 Mid-Tech시장 또는 중소형 트랙터 시장에서 구보다, 안마 등 일반기업에 비해 기술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인도 마힌드라(Mahindra)와 중국기업에는 가격 면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현지의 농기계 사용 환경 및 조건을 반영한 최적 설계된 제품에 대해 신뢰성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선진업체들의 설계자료 비공개와 데이터획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국내 농기계업체의 성장에 장애가 되어 왔다. '수출농기계고도화지원사업'은 국내 농기계산업 기술지원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농기계산업의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를 통해 국내 농기계산업의 기술,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여 2030년 세계 시장점유율 3%를 달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관련기업의 최적설계를 지원하고 시제품 및 신제품 개발 후 구축장비를 활용해 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여 기업의 기술·품질·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 사업 책임자인 강봉용 본부장은 (생기원 전북지역본부)은 "이 사업을 통해 농기계 기업들이 독자적인 설계·해석 및 신뢰성평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기계산업 수출경쟁력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생기원' 농기계신뢰성평가센터가 농기계업체의 든든한 멘토가 되고, 농촌진흥청 등 전북 소재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력하여 전북으로 기업들이 집적화하도록 유도하여 전북이 명실상부 국가 농기계산업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올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전달.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7일 전북도청 4층 접견실에서 2018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8개 기업((사)전통예술원모아, (주)서우, 실오라기협동조합, (주)세진산업, 익산청년드림협동조합, (주)그로스다임에프앤비, 유한회사 골드필드코리아)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

김 원장, 선관위 판단에 "국민 판단에 맡길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원장은 지난 2일 제12대 원장에 취임한 지 보름만에 나타났다. 김 원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법 판단이 내려지자 즉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의 '셀프 후원금' 처리, 피감기관의 돈으로 떠난 해외출장 적절성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운영한 국민소통수석은 선관위 발표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위 판단을 존중한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대통령

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중앙선거위 판단결과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상황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도 했다. /뉴시스

Table with 2 columns: Index (2면, 12면) and Content (-9월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10만원, -전주대사습 대통령상 복원 확정)

불시소방조사 늘린다... 가연성외장재 사용금지 확대

정부, '화재안전특별책' 확정... 전기안전 취약시설 점검 등

정부가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 소방청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개혁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 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도 고려해 개선한다. 또 화재원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축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보장 방안도 마련한다. 저비용 보강공법의 개발, 재정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소유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예방활동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대처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건물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한 주민 참여 교육을 활성화한다. 전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민방위훈련 연계)과 불시소방훈련의 확대를 위한 체험형 교육시설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월초 청와대 정책실장(실장 장하성)을 단장으로 하는 '화재안전대책특별TF팀'(TF팀)을 구성했다. /뉴시스

군산에 전국행사 유치한다

도, 지적재조사 연수대회 등 내일 리버힐 관광호텔서 전북 지적업무 발표대회도

전북도가 군산 경계를 회생시키기 위해 모든 분야별 각종 행사 유치를 통해 전국에 군산상황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간, 군산 지스코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주관 약 600여명이 참석하는 '2018년 전국 지적 및 지적재조사 연수대회'를 유치했다. 또한 '2018년 전국 지적 및 지적재조사 연수대회'의 전국 각 시·도별 예선전으로 약 120여명이 참석하는 '전북도 토지 및 지적업무 발표대회'도 19일부터 1박 2일 동안 군산 리버힐 관광호텔에서 전라북도 토지정보과 주관으로 연다. 특히, '2018년 전국 지적 및 지적재

조사 연수대회'는 전북도가 전남 등 타 시·도와 치열한 유치전에서 얻어낸 성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했다. 본 행사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시·도 지적업무 담당과장, 시·군·구 공무원 및 지적학계 등 참석 인원만 약 600여명으로 어려운 군산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실용성 있는 연구 과제를 통해 지적·공간정보·지적재조사 분야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으며, 전국대회인 만큼 정부의 정책방향, 지자체 실무정보, 학계의 연구결과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지적행정 접점에 있는 실무자들이 경험을 통해 체감하고 있는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2차 경선 결과

전주시장에 김승수 부안군수, 권익현 확정

이현용 경선 등록 하지 않아 김 후보 사실상 단수로 결정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치를 전북지역 단체장 후보들이 치름 결정되고 있다. 17일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1차 발표에 이어 이날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전주시장 후보와 부안군수 후보를 확정했다. 전주시장은 김승수 예비후보로 결정됐고, 부안군수의 경우 권익현 예비후보가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승수 후보의 경우 이현용 예비후보가 경선 등록을 하지 않아 사실상 단수후보로 결정됐고, 권익현 후보는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북도지사와 완주군수, 진안군수 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상민 기자

Large colorful banner for the '2018.5.5토~5.7월 Festival site_ Jeollabukdo Buangun' (부안오복마실축제). The banner features cartoon characters and text promoting the festival, including dates and the slogan '어화세상 벗님네야~ 복받으러 부안가세~'.